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3월 11일(금)
(윤력 2월 9일)
Пятница
11 марта 2022г.
№ 9 (1197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 세계의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5일(토)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국제적 제재 대상의 사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 대책 법안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의 조건들 속에 국민과 사업의 파산 방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관련한 제재가 시행되었다.

위기 극복의 대책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 중소기업과 아이티(IT)기업과 관련한 검증 취소.
 - 국립 조달청의 조건과 절차 간소화
 - 정부의 권한으로 연금보험, 연금 비용, 연금자에게 고정된 급여에 추가 지급을 시행.
 - 러시아에 최저생활비, 최저 근로임금 규모 산정에 대한 새로운 특별 법안 확대.
 -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기간 연장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은행 무이자 신용대출 도입.
 - 의약품 구매 절차 간소화, 내각에게 제약사의 허가권을 조정할 권한 부여, 러시아에서 일부 의약품 수출을 통제할 전망.
 - 정부의 권한으로 해외에서 유학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수용하는 데 대한 규정을 수정한다.
- 정부는 3월3일 국가 두마에 사업 및 국민 지원 조치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날 연방평의회가 이 조치를 승인했다.

2022년 3월4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러시아 군사작전에 대한 고의적 허위 정보 보도와 확산' 및 러시아 군사의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호소와 비난, 국제적 제재에 대한 독려에 형사적 처벌에 대한 법안을 채택하고 이날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발표했다..

박상태 소장, 새고려신문사 방문



박상태 소장.
(이예식 기자 촬영)

지난 10일(목)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 출장소 박상태 신임 소장이 본사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새고려신문사 배 워도리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 소장은 현재 사할린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하고 사할린에 도착하고 나서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여러 급한 일로 바빠서 이제부터 사할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동포 관련 사업에 주목할 것이며 특히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날 사할린의 유일한 한민족지의 어려운 사정도 알아보고 동포신문을 적극 돕겠다고 표명했다. (본사기자)

전 저소득층 가정의 8세-1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수당 약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가정의 8세-1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전 저소득층 가정의 8세-16세 이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과 가정 지원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축하 인사에서 밝혔다.

이 정책은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첫 가족수당은 5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8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수당은 실제 지역에서 자녀를 위한 최저 생활비의 50%, 75%, 100%까지라고 러시아 노동부 장관 아톤 코차코브가 밝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당 윤석열 후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월 9일 윤석열(62) 국민의 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1987년 직선제 이후 후보 간 가장 적은 득표차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에 선거인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가 진행돼 사전투표율은 36.9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국민들의 참여가 뜨거움을 보여주었다.

개표 결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48.6% (1,639만여 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47.8% (1,614만 여표)로 득표차는 0.73% 포인트인 25만 표이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27년간 검사로서 근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서울지검장 임명, 2019년에는 검찰총장에 취임, 이후 총장 사퇴 후 국민의 힘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당선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 취임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사할린 국립대에서 로봇공학 포럼 개최

사할린 국립대학교 행사장에서 제 4회 주로봇공학 포럼이 개최되어 2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각 지역에서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발표하고, 특별한 연구활동과 기획 구성 및 설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로봇공학의 설계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기획이 발표되었고 행사는 2일간 진행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기술 창작에 관심을 갖게 하고, 기술 전공 선택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버스 내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중단

3월 10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중버스의 요금 결제가 중단된다고 스베르방크 측이 전했다.

요금 결제는 은행카드와 교통카드(학생 및 사회지원 카드)와 현금으로 가능하다.

미르 카드는 제한 없이 모든 전자 결제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속한 결제카드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가민페이, 스베르페이에서 결제가 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지인에게 신문에 소개할 만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한정자(러시아 이름 스웨틀라나 페트로브나, 본명 이정자, 1959년생)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은 본지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는 말에 깜짝 놀라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라면서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다. 천천히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자 씨는 식구가 많은 9명의 자녀 중 여덟째 아이로 우글레고르스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시던 어머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력과 땀의 값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대학을 가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자 취직부터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과 연수 과정을 밟았다. 그에게는 다양한 반죽으로 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게 마음에 들었다. 우글레고르스크시 <차이카(갈매기)레스토랑에서 제과 조리사로 활약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마침 우글레고르스크시에 파견된 예비신랑을 만나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가족의 행복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방해가 되었을 뿐이다. 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에 스웨틀라나는 옷 장사를 비롯해 여러 사업을 해보았는데 결국엔 장사가 자신에게 정말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거주지도 여러 번 옮기다가 노위시비르스크까지 이사했다. 이 도시는 남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2000년에는 고향이 더 좋다는 생각에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그때 이후로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살고 있다. 돌아온 후에는 자기 사업도 해보았다.

어느 하루 지인이 찾아와 제과 전

과자를 만드는 즐거움으로 산다

매일 약 30개 종류의 과자를 생산하는 한정자 씨



문가로 기술적 도움을 부탁했다.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과자 출시만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을 존경하던 스웨틀라나는 '이곳에서 1년만 해보자. 돕고 나가서 얼마든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이 회사는 <페체뉴키 사할리나 (사할린의 과자)>란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여 이제는 엄청난 양의 과자들을 전 사할린에 공급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만 해도 150개 매점으로 제과를 공급한다.

처음엔 스웨틀라나가 유일한 전문가로서 과자 레시피를 연구하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회사의 완전한 기반을 닦으려고만 했다. "그런데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3년도 적어요. 제품 출시 외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화합도 중요했죠. 저

는 지금까지 해놓았던 걸 지키기 위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연금 받을 나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스웨틀라나가 고백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20명이다. 이들은 주로 퍼프 페이스 트리, 에클레르, 쿠키 등을 굽는다.

그가 직접 만드는 과자 레시피는 약 100개 정도가 된다. 그중 50% 정도가 출시되고 30개는 매일 판매제품으로 생산된다. 그는 이 생산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료들과 함께 한다. 자신의 출시 제품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기가 만든 과자를 소비자가 맛있게 먹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한 일이다.

그는 책임감이 대단히 높은 분으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좀 엄격하다고 했다. "즐거움 것을 찾고 즐기는 편이면서도 요구가 많은 간간한 성격"이라고 말하였다.

얼마 전에 그는 동료 김 류보위 씨를 따라 <60±>클럽의 모임에 참가하게 되어 한인 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고 스스로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동포활동가들과 함께 행사 진행 고민도 하게 되었다.

그는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관심이 많다.

"제가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면 정말 마음이 좋아요."라고 그는 말한다.

"스웨틀라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활발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나 잘 챙겨줘요."라고 한정자 씨의 동료 김 류보위가 전했다.

스웨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자원 봉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90년대에 그의 가족이 한때 홈스크 구역 차플라노워 마을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이곳에 한 여성 동포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많고 경제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스웨틀라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항상 나눴다. 먹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옷도 챙겨주었다.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도 이 가족은 스웨틀라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큰 가족의 자녀들도 다 어른이 되었고 나름대로 성장했다. 그리고 해마다 매 명절 때가 되면 서로 연락하고 축하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걸 보는 그의 자녀들도 배려와 자비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처럼 배플곤 한다.

"한번은 아들이 아직 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새 스웨터를 사주어서 이걸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스웨터가 없는 거요. 친구한테 줬다면데요. 저는 그냥 빌려주었다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 스웨터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완전히 쥐버렸대요. '엄마, 알잖아요. 그 가족 형편을, 저는 관찮아요.'라고 하더

라고요. 사실 아쉬워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지요."라며 스웨틀라나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스웨틀라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최근에도 새 레시피 연구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는 주말 하루만 쉰다. 쉰다기 보다는 못했던 집안일 등을 한다. 그에게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건설 현장의 전문가라 지금 사는 개인집도 남편이 직접 건축했다. 같은 마당에 또 하나 지은 집에는 맏아들의 가족이 살고 있다. 같은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바쁘다 보니 며칠 못 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휴일에는 두 손녀(두 아들의 딸들)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한다. 스웨틀라나 씨의 가족은 야외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여 친구와 또는 가족들과 함께 가는 소풍은 항상 즐겁다고 한다.

그가 동포사회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새 한인단체 중요 멤버 중 한 분이 되었다. 2월에 생긴 단체인데 벌써 두 개 행사를 개최했다. 하나는 2세들을 위주로 하는 음력설맞이 이번에는 3월 8일 세계의 여성의 날 행사이다. 이 행사 조직에, 특히 문화프로그램 진행에 한정자 씨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앞으로 한정자 씨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이모저모

사할린,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스키마라톤 우승자 결정

3월 6일(일) 제23회 사할린 국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국제 스키마라톤대회가 열린 가운데 눈보라기 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스키어들이 참가했다.

10세 이하의 남녀 아동들은 1km에서 경주, 11세-16세의 청소년들은 5 km 원형 코스에서 경주하고, 스키를 잘 타는 스키어들은 레스노예 마을에서 장거리 30 km-50 km 코스에 참가했다. 장거리 30 km 경주 결과 일리아 예레센코(노글리키)가 1시간 37분 02.9초로 당당하게 가장 먼저 결승선에도 착해 압도적인 우승자가 되었다.

여자 30 km코스의 경주 결과 갈리나 리완스카야(토마리)가 2시간 7분 7.5초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노글리키의 스포츠 장인 이완 쿠스토브에게 우승을 축하했는데 그는 50km 코스를 2시간 17분 41.6초로 완주해 참가자 중 가장 빠른 기록을 보였다.

여자 스키마라톤 50 km 코스 경주에서는 타치야나 오보리나 (페르미, 소콜)가 2시간 49분 02.8초를 기록으로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Более 400 спортсменов не смотря на плохую погоду (снег, ветер) вышли 6 марта на старт XXII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Мальчишки и девочки до 10 лет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один километр, а тем, кому 1116 лет, — круг в пять километров. Продвинутые лыжники стартовали в селе Лесном.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бе-

жать 30 или 50 километров.

Первым на финише появился Илья Ереценко (Ноглики). Преодолев дистанцию 30 километров за 1:37:02,9, он в гордом одиночестве пересек финишную черту, став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У женщин на этой дистанции красивую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Галина Ливанская (Томари) — 2:07:07,5.

Самую же красивую победу праздновал мастер спорта из Ноглик Иван Кустов. Марафонскую дистанцию 50 километров он преодолел быстрее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 2:17:41,6.

У женщин быстрее всех 50 километров преодолела Татьяна Оборина (Пермь, Сокол) — 2:49:02,8.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슬레니짜 밀짚인형 태우기

3월 6일(일) 전통 마슬레니짜 축제가 유리 가가린 문화·휴식시공원에서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지만, 날씨로 인해 프로그램이 조정된 가운데 대규모 민속축제 진행이 눈보라로 힘들어져 프로그램은 단축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좋지 못한 날씨 여건은 많은 사할린 주민들이 공원을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정오에는 카트 경주장에서 시 예술단들이 공연을 펼쳤다. <러시아 제법> 앙상블과 사할린 민속 합창단이 부르는 유명한 곡들은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제레모크' 놀이센터에서는 주제별 프로그램들에 따라 활동교실이 열렸고, 축제의 일환으로 2000개의 불린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으나 많지 않은 인원이 모인 관계로 공원 관장은 불린을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웨르흐네예 호수 위에 설치된 마슬레니짜의 밀짚인형은 축제의 주요 장식물이다. 이날 민속 전통에 따라 모두 '겨울아, 잘 가!'라고 외치며 밀짚인형을 태웠다고 가가린 공원 측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жгли чучело Масленицы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аздничное гулянье Масленица прошло 6 ма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дготовили обширную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но погода внесла свои коррективы. Масштабно провести народные гулянья не дала метель, поэтому программа прошла в усеченном формате. Тем не менее многим сахалинцам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не помешали приехать в парк и повеселиться.

В полден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ртодрома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Зрителей радовали своими яркими номерами ансамбль «Русский терем» и Сахалин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В центре досуга «Теремок» прош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с мастер-классом.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бесплатная раздача 2000 блинов. Поскольку людей было немного, и угощение осталось, руководством парк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здать блины рабочим,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расчисткой города от снега.

Главным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чучело Масленицы, установленное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По народной традиции, его сожгли с криками: «Прощай зима!», сообщает отдел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ГПКИО им. Ю. Гагарина

사할린주에서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판매직

사할린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판매 출납원과 판매 직원으로 나타났다. 구직에 대한 많은 광고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직종을 구하는 이력서들이었고 청소년은 가장 적게 찾는 직종이었다.

사할린주 인구 절반에서 4천 개 이상의 여성 이력서를 분석한 에이츠에이츠루(hh.ru) 정보 조사에 따르면 판매직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밝혔다.

(8면에 계속)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주 한인협회,
어르신들을 위해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5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한인1세 어르신들 50여 명을 모시고 따뜻한 식사 대접을 하고 즐거운 음악을 선사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음력설 행사도 취소되고, 현재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오랜만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새로 생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단체 (회장 천영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품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새로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소개 겸 명절 행사 진행

지난 6일(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새로운 한인단체 소개가 있었다. 러시아어로 표기는 약간 달랐지만 한국어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다. 새 단체는 2월에 설립되었고 지금 법무부에서 등록 과정을 밟는 중이다. 시한인회의 회장으로는 천영근, 임원들로는 유 나탈리아, 안수학, 김 류보위, 한 스웨틀라나가 무대에서 소개되었다.



이날 새 단체장과 활동가들에게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청소년회(회장 이 세르게이)에서 축하했다. 소개가 끝난 후 행사는 새 단체가 주최자로 나선 세계 여성의 날 행사로 이어졌다. 한인문화센터의 강팔용, 서 마리나, 우 미하일 동포가수들의 축하공연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새 단체 멤버들의 즐거운 공연에 갈채박수를 보냈다. 행사 참가자 중 주 한인여성회 회원, <60+>클럽 참가자, 청소년회 회원, 일반인 시민 등이었다.

(배순신 기자)

주 여성회,
즐거운 자리 마련



지난 8일(화) 여성의 날 기념으로 주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야나)의 주최로 가가린 레스토랑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명절 행사가 펼쳐졌다.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즐거운 시간을 <60+>클럽, <아리랑>무용단, 여성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성회 측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가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행사를 찾아온 모든 여성분들에게 남자들이 툴립을 선사했다. 이 행사 참가자들도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사 기자)

재외동포재단,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
해외 개최 결선 후보지 2곳으로 미국 델러스,
오렌지카운티 선정

4월 6일(수)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개최지 선정 예정

내년도에 최초로 해외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의 결선 후보지로 미국 델러스, 오렌지카운티 2곳이 선정되었다.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선정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주최로 미국의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오렌지카운티 총 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유치 신청을 하여 경합을 벌였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3월 3일(목) 1차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신청을 한 총 4개의 후보지 중 결선 후보지

2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최초의 해외 개최인 만큼, 개최 도시의 컨벤션센터,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델러스, 오렌지카운티 2곳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곳의 결선 후보지 중 최종 개최지는 오는 4월 6일~7일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 연계하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광일 사업이사는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보여주신 미주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하다. 이번 평가를 하면서 무엇보다 동포사회의 잠재된 역량을 보게 되었다. 세계한상대회의 해외 개최가 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한상(韓商)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왔으며, 개최 21년째가 되는 2023년에 처음으로 해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신PD의 K 리포트]

AI(인공지능)에 속지 맙시다

한겨울 7시쯤은 거의 한밤중 같습니다. 경기도 어느 기차역에 내리니 켜져 있는 몇 개의 가로등만으로 겨울 밤의 어둠을 온전히 밝히지 못합니다. 택시 한 대가 서있어서 운이 좋다 생각하며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니 기사분이 본인 스마트폰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리아, 000.' 60은 분명히 넘었고 70세 이상인지 그 아래인지 짐작이 쉽지 않은 노(老) 기사분께서 이렇게 AI 도구를 잘 쓰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분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상큼한 여성 목소리가 반응했습니다. '네, 몇번째 장소로 갈까요?'



인공지능(AI) 기술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디지털이 몸에 배인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장년층도 이렇게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적응력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아이의 표정이 어두운데, 일기를 제때 안써서 밀린 여러날을 한꺼번에 채워야 때문이죠. 대부분의 공감을 얻을 만한 것으로 '밀린 일기의 날씨를 기억해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초등 2학년 아이의 수심 가득한 고뇌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 아이가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곧 표정이 밝아지면서 식탁 위의 작은 모니터 앞으로 가서는, '지니아, 2월 10일 날씨 어땠어?'

AI는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고 원하는 답을 내주도록 훈련돼 있습니다. 소위 우리와 '소통(疏通)'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작동하니 더 환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과목 중에 <인터랙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있었습니다. '인터랙션'을 우리말로 옮기면 '쌍방향(소통)' 쯤 됩니다. 쌍방향은 일방적인 정보, 의사 전달이 아니라 상호간에 순환되는 사이클이 존재해야 비로소 '쌍' 방향성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듣고~생각하고~말하기'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도 멍뚱뚱 침묵만 해서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것도 안됩니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한 후 상대방 의견과 질문에 부합하는 말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렇게 'listen ~ think ~ speak'의 과정이 오롯이 실행돼야 '인터랙션'이 이뤄집니다. (Chris Crawford 'The Art of Interactive Design' 참조)

AI 스피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쌍방향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인님,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라든가, '지금 처리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주세요.'라고 하며 더 이상의 인터랙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말투이지만, 이 AI는 더이상 제 말을 경청하고 생각해서 처리(listen~think~speak)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밀한 첨단 기술로 가공한 상냥한 목소리에는 이런 '일방적 거부'가 숨어 있으며, 우리는 자주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 줍니다.

AI는 자신이 학습한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래밍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processing) 또 말합니다(output).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해서 여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거나 행동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AI의 아주 상냥한 '죄송합니다'라는 연속적인 사과 멘트가 그 근거입니다. AI 스피커 사용 만족도가 42%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한 조사를 봐도 분명 그렇습니다.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결국 AI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경청해서 수행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또는 프로그래밍하기에 따라서는 '하기 쉬운') 것만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말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거부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며 하물며 '듣고~생각하고~말하기' 과정이 순환되는 쌍방향성도 더욱더 아닙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 단 한사람이 20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최종 당선자 1인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잘 듣고 잘 생각해서 잘 말(실행) 하겠다'며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선거 기간의 열기와 관심은 필히 식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차갑게 내팽겨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종 당선인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며 겸손을 가장한 일방 주행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인터랙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는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반복한다면, 그 대통령은 '쌍방향' 소통을 거부한 채,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프로그래밍된(계획한) 것만 하겠다는 위험한, 또 이기적인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편성기획국장)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ищут варианты продолжения работы в России

Сеул, 9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ортеры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астущ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работе в России, поскольку ситуация с Украиной вызвала приостановку поставок в Москву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орским, воздушным и назем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Samsung приостановила поставки своих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мартфонов 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в Россию временно, ссылаясь н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ичины», которые заставили миров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мпании,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и оператор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прекратить свои услуги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самой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мира. Н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гигант опроверг утверждение о том, что 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его иностранным конкурентам, таким как Apple и Intel, вводя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елевизоров в Калуге под Москвой работает в прежнем режиме. Однако заводу вряд ли удастся избежать неудач в получени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если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России с Украиной продолжится. «Мы ищем контрагеро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ю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ты своего зав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минувшей среды. Ссылаясь на глобальный дефицит автомобильных чипов,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у завода с прошлого вторника по субботу, планируя возобнов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ник.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что субподрядчики в России не смогут производить автозапчасти из-за продолжаю-

щегося кризиса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сохраняются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сти завода сократить вдвое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или снов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его. Большинство мировых судоходных компаний, включая Maersk и MSC, уже прекратили доставку грузов в Россию,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санк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отив страны. HMM, крупнейш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сообщила грузовладельцам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о приостановке бронирования перевозок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о 2 марта. Комп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для бронирования перевозо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порт Восточный. «Как только мы примем решение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маршрутам, мы немедленно уведомим грузовладельце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HMM. Рейсы в крупные города России, которые Samsung Electronics использовала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воих смартфонов, также были заблокированы. Недавно авиакомпании Korean Air и Asiana Airlines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московских аэропортах Шереметьево и Домодедово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двух недель при перевозке грузов в Европу. Они ссылались на невозможность дозаправки в аэропортах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ы.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ам из США и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уже запретили летать над Россией или приземляться в стране, так же как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запретили российским самолетам входить в их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роме того,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прекратила работу линия Москва-Киев Транссиба, а с начала этого месяца недоступны заказы на линию Москва-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 ЕДИНСТВЕ – СИЛА!

Перв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27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прошло Перв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КРК. 45 человек из Сеула, Пусана, Инчхона, Ансана, Кенджу, Посына, Хвасонга, Кимпхо, Чхонана, Танджина, Кванджу собрались в одном месте,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людей, с которыми они создавали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в теч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2 лет, но и зарядиться энергией развития и вдохновением.

Поздравить АКРК пришли члены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Общества поддержки коре-сарам «Номо» г-н Сон Чжончжин и Ким Ёнсук.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ом «Номо»,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много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интеграции в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А также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осьмисоттысячной диаспоры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глава Торгового 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оюза профессор Ким Ёнсон.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а «Мамы Инчхона» (Екатерина Цай), «Общество семей инвалидов» (Цхай Мария), КБН (Денис Херай),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олонтеров коре-сарам (Цой Елена и Югай Александр), Общество «Родители Кенджу» (Светлана Ца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и а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АКРК.

Для нашей молодой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у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нас не было большого опыта работы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л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страны становится проявлением своей позиции, способной не только менять отношение мес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нам, но инструментом влияния на политику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сарам и к мигрантам в целом.

В отчете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КРК Тен Жанной, можно было воочию проследить повыш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 начиная с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2017 году,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консолидации, до выступления в защиту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коре-сарам в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22 году. На рост самосознания и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ю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огромную роль оказывает осмыс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пыта коре-сарам. Участие членов АКРК в церемонии перенос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до в Корею в 2021 год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осознанию общности



27 февраля в г. Ансан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в контексте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В отчетном докладе также было дано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финансовых расходов бюджета, собранного из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онтент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брания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была принята Резолюция и определены планы на 2022 год. (С текстом резолюции вы можете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фото). Все действительные члены получили печатную версию отчета и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Почетными доскам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 вклад в духовную консолидацию, защите интересов и прав коре-сарам,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у и взаимопомощь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Общество «Номо», Хан Владимир, Лим Наталья, Ан Анна, Огай Екатерина, Кwon Светлана, Пак Татьяна, Эм Ольга, Цой Светлана (Кванджу), Нам Лариса, Ким Юрий, Ли Дмитрий, Шин Николай, Ким Эльмар, Горбачев Максим, Цхай Мария, Чон Александр, Ким Дмитрий, Цой Светлана (Ансан), Ким Вера, Цой Юлия, Пак Светлана, Тен Светлана.

Все мы — люд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разных взглядов и разных судеб, но объединенные одной целью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и прав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осознающие свою лич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Собрание утвердило Совет директоров в составе: Но Александр, Цхай Евгения, Тен Жанна и переизбрало президентом АКРК Но Александра.

2022год,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сточник: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РК два дня подряд свыше 300 тыс.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за сутки 9 марта в стране подтверждены 327.549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два дня подряд превышает 300-тысячную отметку.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болевших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превысило 5,5 млн человек.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пи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 в ближайшие две недели. В тяжёлом и 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ятся 1.113 человек. Используются 61,1% коек в палатах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1.294.673 пациента получают лечение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В результате осложнения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вызванных COVID-19, за минувшие сутки умерли 206 человек. Это второй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сле 5 марта, когда отметка составила 216 человек. Общее число умерши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й — 9.646 человек. Коэффициент смерт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0,17%.

KBS World

В РК продолжают лесные пожары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борьба с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9 марта, в уезде Ульчжи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и городе Самчхок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жар потушен на 70%, в уезде Тальсон-гун города Тэгу - на 45%, в округе Кымчжон-гу города Пусана - на 90%. В городах Канныне и Тонхэ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огонь практически потушен, ведётся борьба с небольшими очагами. Но в уезде Ульчжин-гун и Самчхоке пока не удаётся справиться с крупными очагами возгорания, что связано с сильным ветром. Экстренные службы сосредоточили усилия на том,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гня на жилые районы и важ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страдали 577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352 жилых строения. Уничтожены 22.672 гектара лесных угодий. В центрах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находятся 527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из опасных районов.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ША подтвердили исключение РК из эк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ША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о об исключении РК из списка стран, которые обязаны соблюдать расширенные экспорт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прям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одукта (FDPR).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8 марта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и бюр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СШ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сключений странам-партнёрам укрепляет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усилия по внедрению строгого эк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FDPR, компании, использующие америка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технологии за рубежом,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одобрение США при отправке продукции в Россию. Ранее РК объявила о ряде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о прекращении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с семью российскими банками, подвергшимися санкциям США. Кроме того, запрещён экспорт в Росс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пересмотру правил,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требований к экспортным лицензиям для 57 не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действие правил FDPR.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антивирусных мер в школах нан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ерсо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наняло примерно 61 тыс. человек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антивирусных мер в школах в первом семестре. Это 87,3% из 76.696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измерением температуры, контролем посетителей, дезинфекцией и экспресс-тестированием на вирус. 2 марта в школах начался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формировало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е группы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вариан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в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входят около 1.300 бывших школьных медсестёр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ажд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школам в отслеживании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лицами с подтверждённым диагнозом COVID-19 и вести другую работу по сдержива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Ли Чжон Чжэ удостоен приза Indie Spirit Awards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Актёр Ли Чжон Чжэ, исполнитель ро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сериале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получил премию «Независимый дух» (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 в номинации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в телесериале. 37-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ы состоялась 6 марта в Санта-Монике штата Калифорния. Ли Чжон Чжэ обошёл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Олли Александра из фильма «Это грех», Майкла Грейеса из «Водопада Резерфорд», Мюррея Бартлетта из «Белого лотоса» и Эшли Томаса из «Они: Завет». Ли Чжон Чжэ сыграл в сериале роль Ги Хуна, неудачливого мужчины средних лет, который участвует в соревновании, основанном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детских играх, в котором может получить 37 млн долларов.

В мире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им книгам

В условиях затянувшейс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за рубежом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нигам. По данным крупнейшей в РК сети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ов «Кёбо Мун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дажи книг за рубеж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7,5%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не первый год. Так, в 2020 году рост составил 85,8%.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ёбо Мунго»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влиянием пандемии, которая ограничила передвижение по миру. В этой связ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люди, читающ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ли чаще заказывать книги из РК.

Чхэ Гён Сон получила премию Гильдии арт-директоров США

Чхэ Гён Сон, художник-постановщик нашумевш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ериал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получила премию Гильдии арт-директоров США (ADG). 26-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состоялась 5 марта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Чхэ Гён Сон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Одночасовая современная однокамерная серия».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оперничал с проектом «Утреннее шоу» с Дженнифер Энистон в главной роли, сериалом «Наследники», в итоге одержав победу. В 2020 году обладателем премии стал художник-постановщик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Ли Ха Чжун.

Группа BTS даст концерты в СШ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аст несколько концертов в Лас-Вегас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 пройдёт на стадионе Allegiant 8-9 и 15-16 апре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одюсерском агентстве Big Hit Music. Это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группы в США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в ноябре-декабре 2021 года. 16 апреля состоится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я концерта. Группа BTS номинирована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ее выступление поп-дуэта/группы». Сразу по окончании мартовских концертов в Сеуле артисты отправятся в США для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осле чего проведут концерты для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клонников. (RKI)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 оппозиционер Юн Сок Ёль

В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известны результаты состоявшихся 9 марта выборов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С минимальны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победу одержал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был выдвинут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Его главный конкурент Ли Чжэ Мён от правящего блока признал свое поражение.

Выборы оказались даже более драматичными, чем предсказывали многие, кто ожидал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ой борьбы. Экзитполы не позволили предсказать победителя, а во время подсчета голосов оба главных претендента на победу - Юн и Ли - шли с минимальным разрывом. После подсчета 98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показатель Юна составил 48,6 процента, тогда как Ли набрал 47,8, а третий кандидат Сим Сан Чжон - 2,4 процента. В итоге вышло, что победителя от проигравшего отделили менее одного процента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что стало самым малым разрыво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в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говорить в абсолютных цифрах, то при почти 33 миллионов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корейцев победу определила разница в немногим более 260 тысяч голос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изнал свое поражение, взяв вс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оигрыш на себя и попросил прощения у всех, кто ему верил и помогал.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 поздравил Юн Сок Ёля с победой, пожелав



ему успехов на посту лидера страны и призвав сплотить страну. Сам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признался, что "ночь оказалась очень длинной", поблагодарив всех за поддержку.

Напомним, что церемония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стоится 10 мая, срок правления - пять лет без права переизбрания. Итоговая явка на нынешних выборах в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ла 77,1 процен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Фото: KIM Min-Hee / POOL / AFP

Адаптация в новой среде — основная проблема перебежчиков

Сеул, 6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ло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группу, которой поручено помоч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еребежчикам, испытывающ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в страну.

Команда из девяти человек, состоящая из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различ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начиная от образован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заканчивая проживанием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для перебежчиков,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огласно проводимому раз в два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опросу, проведенном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1 582 перебежчика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в дополнение к общему социальному пакету,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му всем перебежчикам при их переселении.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или 47

проц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у них был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кризисные ситуаци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еребежчики, часто связаны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социальным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 заяв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Ли Чон Чжу на регулярном брифинге для прессы. — «Мы усилим нашу поддержку,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и стабильно жить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Условия жизн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оказались в центре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еребежчик, бежавший с Север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нова пересек сильно укрепленную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Известно, что этот мужчина, которому,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было за 30 лет, испытывал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проживая на Юге.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70 тонн свежей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ы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Сегодня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продажу рыбы по социальным цена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навагу по стоимости от 44 до 85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минтай от 60 до 75, сельдь от 50 до 58, камбалу от 50 до 85 и треску от 80 до 115.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дажа свежего уло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е реже 2 раз в неделю.

–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начал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овместно с глава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оводи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системных поставок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ы напрямую с промысла в районы, – рассказал Иван Радченко. – Благодаря личному участию глав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определены предприятия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ставки свежей рыбы в районы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Вопросу обеспечения жителей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итоговую стоимость свежей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ы заложены минимальные возможные затраты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озничная наценка и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Продукция доставляется из портов и реализуется торг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ри актив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торгового места на ярмарочной площадке без опла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о размещении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аже свежей рыбы на цифровой карте.

Так,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свеживывловленную разнорыбичу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области поставляют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ООО «Зюйд-Вест», филиал «Кработаводск»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ООО «Рыбокомбинат «Островной» и ООО «Невод».

Поронайские СПК «РК Дружба» и ООО «Поронайский зверосовхоз», охинское ООО «Рыбновский лосось», макаровское ООО «Рыбак», южно-курильское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долиньское ООО «Август»,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халинские ИП Можайский О.В. и ИП Черных В.В., ногликский ИП Хрянин И.В. реализуют свежую навагу.

Кроме того, с начала 2022 года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или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более 7 тонн свежей рыбы бесплатно. В течени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передали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42 тонны рыбы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едприятия ООО «Меридиан»,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ООО «Курильский рассвет», ООО «Гранис», ООО «Алаид», СК «БСФ», ООО «Рыбак», СПК РК «Дружба», ООО «Август», ООО «Прибой Корсаков», ООО «Поронайский зверосовхоз», ООО «Инма», ЗАО «РК им. Кирова», ООО «Континент», ООО «Каниф», ООО «Рыбокомбинат «Островной»,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ООО «Таранай», ООО «Оха», ООО «Мираж» и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ит все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явил на встрече с членами 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ц мероприятия с наступающим 8 марта и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бсудил волнующие их темы.

–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женщина уже не только хранительница домашнего очага. Сегодня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являетесь политиками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Большинство врачей, учителей, воспитателей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 женщины, именно им мы доверяем сво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Спасибо за тепло и заботу, которыми вы делитесь с нами.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цам мероприят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ряд членов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Награду вручили Светлане Болотовой, Инне Кононенко, Ксении Крахмалевой, Татьяне Ли и Екатерине Шарафиевой.

За чашкой 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дали ряд вопросов.

– В связи с возникшей ситуацией особенно волнует, что будет с ценами на продукты и хватит 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асскажите, какие меры предприним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сети сформирован запас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Без перебоев работа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сельхозхозяйственные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и зеленых культур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прежнем ритме. Вопрос поставки недостающих объем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л-

ностью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основным видам 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работан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товым бизнес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овместно с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проводит ежедне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цен на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наличия запасов. Оптов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доставк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встречи затронула тему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в ней жителям Донбасса. «Союз женщин»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акции. Пункты сбора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ткры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инвалидов, а также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14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За неделю собрано около 30 тонн груза – это необходимые вещи, продукты и бытовые товары. Первая партия уже отправилась в пункт назначения.

– Будут ли сохранены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 спросила еще одна активист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когда регион столкнулся с резким падением доходов из-за ситуации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углеводоро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ило сохранение всех взятых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 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х сокращение 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робно ответил на все поступивш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х было около десятка, и поблагодарил участниц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более 140 домов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фасады, кровли, инженерные системы, подв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и фундаменты. Всего – 262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ъезд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которых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общался с жильцами дома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6а. Лариса Барыбина сообщила главе региона, что многоэтажка нуждается в ремонте фасада. Также в порядк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ести подъезды.

–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Лично буду следить за их выполнением,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Будем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ть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 отметила сахалинка.

На Поповича, 67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ТОСа «Космос» Татьяной Хван. Ранее в многоэтажке силами жильцов был выполнен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о решению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в порядок фасад дома.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ала для облицовки здания используют керамогранит. Кроме того, многоэтажка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утепление.

– Мы стараемся все делать своими силами – выполнили ремонт в подъезде, обустроили подв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высаживаем деревья и цветы во дворе, следим за вс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Однако фасад до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льзя.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нас услышали и совсем скоро наш дом получит новый облик, а в квартирах станет теплее, – подчеркнула Татьяна Хван.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более 140 домов.

В ходе объезда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ряд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руч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по просьбе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установки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во дворе дома на Амурской, 102 – важно, чтобы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была готова взять объект на обслуживание. Также на этой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до конца года выполнят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ообщил, что с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в этот двор планируется зай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кже предстоит замена сетей.

– Между тем, такое промежуточное решение, как устранение дефектов асфальта, установк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и лавочек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территорию двора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для жителей. Текущий ремонт – это своевременная и эффективная мера, – сказал мэр. – Также по итогам совместной поездки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офильным структурам – синхрон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ы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и подъездов. Этот вопрос необходимо отработать с управля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Они должны предусмотреть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в домах,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х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 ремонту.

Отметим, деятель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Работа начата с основ – ремонт проводят во дворах и подъездах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жильцов.

Также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весны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и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которая начала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хватил около 700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оит задача на этот год – не

снижать планку. Параллельно будет идт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ы проведут в 124 двор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в график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и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оверили ход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важнейш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м объекте. Сдать его должны уже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 позволит обслуживать до 5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Заверш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ровокзала занимается компания «Восточные ворота страны». Это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и «Красинвест». Новый инвестор, который в 2021 году выиграл открытый конкурс на право достройки аэропорт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 проект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Благодаря перепланировке внутренних галерей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1600 пассажиров в час, по прежнему проекту было только 800. Предусмотрели 11 выходов на посадку вместо 7, 50 кабин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место 14, 8 пунктов досмотра вместо 6.

– Сейчас внутри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демонтажу и монтажу перегорок согласно новой планировке. Увеличена площадь галерей,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ные потоки пассажиров внутре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Олонцев. – Мы со стороны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водим совместные штабы с инвестором дважды в месяц. Там решаются вс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по объекту 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рок сдач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 декабрь 2022 года. Никто о переносе сроков не говорит. Если потребуется,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атериалы будут заменяться на не уступающие по качеству аналоги производства России и Азии.

Работы по достройке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чались в августе 2021 года. Сегодня на объекте трудятся 150 человек, в марте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увеличится до 260, в пиковые периоды – до 750.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влечь на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естные компании поставщиков.

– Учитывая значимость строящегося аэропорта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депутатам важно понимать, с кем мы имеем дел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дна из наших задач сегодня –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ллегам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оценить ход работ. «Красинвест» – опытный инвестор, который с 2016 года заним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главного сибир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в Красноярске, а также управляет малыми аэропортами Сибири.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им удалось превратить аэропорт Красноярск в воздушную гавань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То ес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есть, нас это обнадеживает. Команда «Красинвеста» в разное время занималась развитием аэропортов,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холдинг, созданный промышленником Олегом Дерипаской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Они успешно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эропорты Кубани – Сочи, Краснодар и Анапу. Что важно, есть опыт управления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аэропорт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 значит, инвестор знаком со спецификой нашего макрорегиона. Появление такой опытной команды – хороший знак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позволя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что скоро Сахалин получит аэропор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 считает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ин.

– Главное – чтобы строящийся аэровокзал обеспечил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комфортных и безопасных авиапутешествиях. Важен 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 все же, это будущие главные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наших островов. Принципиально, чтоб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ершилось в срок – время сегодня непростое, неожиданности не исключены. Цель нашего визита – убедиться, что работы идут по графику,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требований. Сегодня во всей стране возникает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На таком фоне мы не можем не уделять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проектам, реализуемы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российским бизнес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ровокзала, безусловно, жизненно важное дело для области. Считаю, что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их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й органам власти и бизнесу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чтобы успешно его завершить, –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Болотников.

С приходом нового инвестора была преобразована архитектурная концепция аэровокзала и прилегающей площади.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ы 4* с закрытым переходом из здания аэровокзала, а также магазинов, кафе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сферы услуг.

Архитектурную концепцию разработала студия Сергея Шведова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Основная иде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знач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восточного форпоста России.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площадь будет напоминать побережье морского залива с кромкой прибоья. Помимо эстетической функции, такое планировочное решение позволит оптималь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и пешеходные потоки,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 максимальную ветровую защиту пассажир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년 대학교 미스로 선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발레리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경제 및 서비스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2학년생입니다. 저는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2021년-미스&미스터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경제 및 서비스 대학교' 콩쿠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2월에 신청하고, 3월에 2개의 예선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예선 단계의 결과로 12명만이 선택되었습니다. 콩쿠르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감을 품고 흥미로운 콩쿠르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진 촬영에 참여하기, 노래하기, 비디오를 녹화하기, 춤을 추기, 모델링하기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댄스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우리는 다닐르 파트너와 함께 일주일 만에 댄스 공연을 준비하고 출연했습니다. 매년 특정한 주제로 콩쿠르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콩쿠르의 주제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는 과학적인 스타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승 전날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정말 이기고 싶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마음가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뷰티쇼, 패션쇼, 결승전 스피드트라이트 등 행사에 참가했을 때 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공주

2인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연단 쇼를 끝마친 후 찾아온 결과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제 이름을 부를 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응원단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후, 나는 제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제 친구와 가족 모두는 저를 지지하며 가장 기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선물과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이 저를 선택하여 "2021년 미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경제서비스대학교" 칭호를 받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기까지 응원해준 사람들의 호응과 사랑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키릴로바 발레리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경제 및 서비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전공**

한류팬 1억5천만명 돌파 10년간 17배 증가

한국국제교류재단 '2021 지구촌 한류현황' 펴내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근, 이하 KF)은 전 세계 152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2021 지구촌 한류현황'을 발간했다. '2021 지구촌 한류현황' 온라인 버전은 앞서 지난 3월 3일 공개됐으며 인쇄본 책자는 3월 14일부터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지구촌 한류현황'은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한 세계 한류 현황 자료를 정리한 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지난 10년간(2012~2021) 전 세계 한류 팬 및 한류 동호회 증가 추이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1억5,660만 명으로 조사됐다. 책자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2년 926만명에 비하면 10년 사이 17배 늘어난 수치다. 사상 최초로 1억명을 돌파한 지난 2020년보다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한류 현황 조사가 이뤄진 국가는 모두 116개국으로 2012년 85개국에서 31개국이 늘어났다. 늘어난 국가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대양주, 미주, 유럽,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 각각 6개국, 1개국, 7개국 및 17개국이 새롭게

유입됐다. KF는 한류가 지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 왔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증가한 한류 팬 수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대양주 15배, 미주 22배, 유럽 13배 그리고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는 무려 130배 증가했다. 경쟁력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팬 층이 통합되고 있는 양상도 확인해졌다. 한류 동호회 수는 최근 4년간(2018~2021년) 점진적 감소세를 보여 2021년에는 1,470개로 2015년 당시 1,501개보다도 적었다. 이에 따라 동호회 당 회원 수는 전년도(2020년 약 7만명) 대비 45% 증가한 약

10만명에 다다랐다. KF는 '2021 지구촌 한류현황'을 펴내며 "한류가 글로벌 문화 현상의 한 흐름이 됐다"고 분석하며 "이제 한류 콘텐츠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문화 공동체인 한류 팬덤을 형성하는 위력을 과시한다. 한류 팬덤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강력한 결집력과 상호연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향후 한류 팬덤의 주역이 될 Z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KF는 올해 '지구촌 한류현황' 발간 10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관련 데이터를 KF 통계센터(www.kf.or.kr/koreanstudies/hallyu.do)를 통해 공개한다. (재외동포신문)

101세 어르신도, 사할린동포도... 고령 산불에 긴급 대피 '진땀'

대창요양원 환자, 대창양로원 사할린동포 등 69명 요양보호사 비상연락망 가동해 어르신 긴급 이송 "내 집 놔두고 어디가노" 일부 어르신 고집에 진땀 "코로나 생기고 이토록 멀리 나온 건 처음" 미소도

'산불이 넘어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산불이 한창 타오르던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대창요양원에 비상연락망이 가동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부터 1시간 30분 거리인 대구 북구 연경동에 사는 요양보호사까지 한걸음에 요양원으로 모였다. 한 요양보호사는 남편의 1톤 트럭까지 직접 몰고 왔다. 트럭에는 어르신들의 휠체어 등 기구가 실렸다. 이들이 밤새 입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이송시키고 큰불도 잡히면서, 요양병원은 다시 집 떠난 어르신 맞이에 분주했다.

경남 합천군 울곡면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675ha를 태운 산불은 중증 치매 환자 등이 모여 있는 대창요양원과 사할린동포가 거주하는 대창양로원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직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평온을 되찾고 있다.

산불은 발생 27시간 34분 만인 지난 1일 오후 6시 큰불이 진화됐으나, 대창요양원 환자 22명과 대창양로원 어르신 47명은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피장소인 대가야호텔과 대가야생활촌에서 머물고 있다.

산불 소식에 대창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밤마다 찾아가 "불났어요.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라고 연거푸 외쳤다. 이곳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모두 8명.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조 4명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조 2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다.

주간조는 퇴근도 미룬 채 상황을 주시했고, 비번인 요양보호사마저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 결과 이들은 대창요양원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대가야호텔 2층으로 어르신들을 무사히 이송했다. 소방대원들도 이송에 투입됐다. 이들은 밤을 꼬박 세워가며 어르신들 건강을 살피고 상황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모두 22명.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휠체어나 침대 신세다. 최고령 101세 어르신 등 대부분은 3~5급 중증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의사소통은 물론 배변 활동도 할 수 없다.

체중이 85kg에 육박하는 한 남자 어르신을 이송하기는 특히 쉽지 않았다. 이송 자체도 문제였지만 극심한 저항도 난관이었다. "나는 안 간다" "내 집 놔두고 어디가노" "나는 여기서 불타 죽을란다"라며 집기와 문을 발로 차는 등 고집이 상상보다 컸다. 요양보호사들은 "소방대원들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 전경. 류수현 기자

이 없었다면 이송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도 놀라긴 매한가지였다. 불길 이 요양원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치솟았고 바람도 많이 불어 공포가 엄습했던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산불이 당장이라도 코앞으로 번져 건물로 옮겨 붙을 것만 같았다"며 "1초라도 빨리 어르신들을 피신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현재까지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할린 동포들이 머물고 있는 대창양로원도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쯤 소방버스로 대가야생활촌으로 이송됐다.

이날 어르신과 환자 보호자들의 연락도 빗발쳤다. 요양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사히 피신했고 건강 상태도 이상 없다'고 안내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호자들의 전화가 쏟아진 것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된 탓에 자녀들도 노심조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큰불이 잡히면서 요양보호사들도 한시름 놓고 있다. 한 어르신이 "2년 만에 이토록 멀리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자, 요양보호사들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코로나19 사태 후 가벼운 산책을 제외하곤 외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어르신 대피소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밥차'까지 달려와 식사를 챙겼다.

대창요양원에서 12년간 근무 중인 전옥희(63) 요양보호사는 "많은 기관과 주민들이 지원해줘 별탈 없이 지내고 있다"며 "요양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르신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22.03.02)

여권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가능 외교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확인하는 서비스 도입주민 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명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이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 기준 10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현재 сахалин주에서 4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찾고 있는 직종 1위는 판매원-출납원이며 이들이 기대하는 월평균 임금은 4만5천 루블리라고 전했다.

2위로 인기 있는 직종은 판매 경영과 고객상담 운영으로 сахалин주에서 이런 분야의 직종을 구하는 이력서는 400개 미만이었으며 이들이 기대하는 월평균 임금은 6만 루블리이다.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 3위는 회계사이다. 이 분야의 이력서는 350개나 되었으며 이들이 기대하는 월평균 임금은 7만 루블리이다.

сахалин주에서 상위 10위의 인기 있는 직종으로는 행정직, 비서직, 경영직, 인사 전문가, 콜센터 직원, 사무 경영, 사무원, 법무 상담이 포함돼 있다. сахалин주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종은 기계 및 기술서비스(이력서 4개), 페인트공 및 미장(이력서 3개), 청소직(이력서 2개)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제출된 남녀 이력서의 비율은 남성 49%, 여성 51%로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일부 여성이 우세한 직종은 회계사(이력서의 87%가 여성), 인사 관리직(여성 81%), 과학 및 교육직(78%), 행정 사무(75%), 스포츠, 피트니스, 뷰티(74%) 분야이다.

반대로 여성의 이력서가 적은 직업 분야는 자동차 사업(9%), 보안(7%), 설비(4%) 직종이다.

에이츠에이츠루(hh.ru) 설문조사에 따르면 극동지역 52%의 회사들에서 남성 그룹의 일부가 3월 8일에 여성에게 축하하고 있으며, 19%의 회사들에서는 이런 축하 전통이 없고, 29%는 매해 다양하게 축하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극동지역 주민들의 19%가 3월 8일을 봄과 아름다움의 날로 여기고, 68%는 이날을 여성의 날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Профессия продавца оказалась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у женщ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профессией среди женщ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родавца-кассира и продавца-консультанта. Среди множества объявлений о поиске работы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оставляют именно эти резюме. Реже всего сахалинки ищут работу дворника.

По информации службы исследований hh.ru, которая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более четырех тысяч резюме прекрасной половины человеч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все же считается работа продавц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профессия продавца-консультанта/продавца-кассира — более 400 женщ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ищут именно такую работу.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 которую они рассчитывают, составляет 45 тысяч рубл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торой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пециальностью считается менеджер по продажам/менеджер по работе с клиентами, в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регионе открыто чуть меньше

400 резюме. В среднем кандидаты хотят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этой работе 60 тыс. рублей. Третье место профессии для женщины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бухгалтера. В этой сфере имеется 350 женских резюме. В среднем они ожидают зарабатывать по 70 тыс. рублей.


В топ-10 профессий,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у женщ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и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тор, секретарь, экономист, специалист по кадрам, оператор call-центра, офис-менеджер,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и юрисконсульт. Женщи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ыми непопулярными считают профессии сервисного инженера/механика (всего четыре таких резюме), маляра-штукатура (три резюме) и дворника (два резюм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мужских и женских резюме в России делится примерно поровну: 49% и 51%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о е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феры, где прекрасный пол преобладает —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бухгалтерия (87% резюме принадлежат женщинам), управление персоналом (81%),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78%),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ерсонал (75%) и спорт, фитнес, красота (74%). И наоборот: наиболее редко женские резюм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 сферах автобизнеса (9%), безопасности (7%), инсталляции и сервиса (4%).


Также,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hh.ru, поздравлять женщин с 8 марта мужской частью коллектива принято в 52% компан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 компаний такой традиции нет, еще 29% каждый год поступают по-разному. Интересно, что 19%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считают 8 марта днем весны и красоты, а 68% относятся к этой дате именно как к женскому дню.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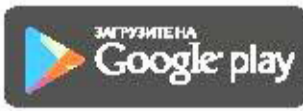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